

시인의 마을

민들레

스쿨버스 다니던 그
자리에 턱 하니
자리 잡고 일출 내
미인 민들레 식구
올망졸망 아스팔트 사이 좁디좁
은
그곳에 망설임 없이 피어난
진망스러운 희망
여우비를 기다리는 땀방울의
목마름으로
처연하게 바라보는 텃새의
재질거림
태양이 멀어져 가도 아무런 말
없이
오늘도 무사히 내일을
준비하는 나그네
단칸방 이랫쪽 태양 없는 그
자리에도
블썸 고개 내릴 내 미인 민들레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식구

『시詩를 담나』

주어진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을 송송 띄울 수 있다.
어느 사람에게는 절대적이고 안정

적인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
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잘 적응할 것
같은 아이가 회복어하고, 격정했
던 녀석은 잘 적응하는 아이라니
를 두루 포용하는 곳이 이 공간이
다.
너를 눈여겨보고 기대치를 한껏

높았던 아이, 그 아이가 민들레가
운동장에 한창이던 어느 날 조용
히 속지를 내민었다. 녀석의 손은
실썸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수줍
어하며 얽은 미소만 남기고 그뿐
게 가 버렸다. 지금은 어느 동네에
서 살 자라고 있었는지 나를 간질
한 소감을 쓰고 싶었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 하
교지도를 하던 그곳에서 올망졸망
피어 있는 민들레 가족을 만났다.
가치 여우비를 기다리는 목마름으
로 멍하니 바라만 보던 민들레 가
족이 녀석을 많이 많이 있었다. 내
일을 준비하는 귀고 귀 생명력의
민들레 가족과 녀석을 동일선상에
서 바라볼 수 있었다. 건장하고 튼
실하게 성장하길 응원하는 마음이
다.

독자제언

상생하는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자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
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집회시위
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
다.
그러나 최근 10월 20일에 진행된
민주노동당 집회를 보면서 우려의 시
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시위 장소에는 불특정 다수
가 모이게 되고 참여자들의 대화나
신체접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전염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감염병의 위험은 전염
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
는다고 느끼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
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
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 통보를 통한
방역 조치의 강화, 거리두기를 위
한 대화경찰관 증원 등 코로나19로
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
적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회 측은 집회시위 참여자
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작성, 마
스크 착용 의무 등의 코로나19 방
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마음껏 의
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
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의사표현의 장
이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이창현 남원경찰서 경비직전계 경사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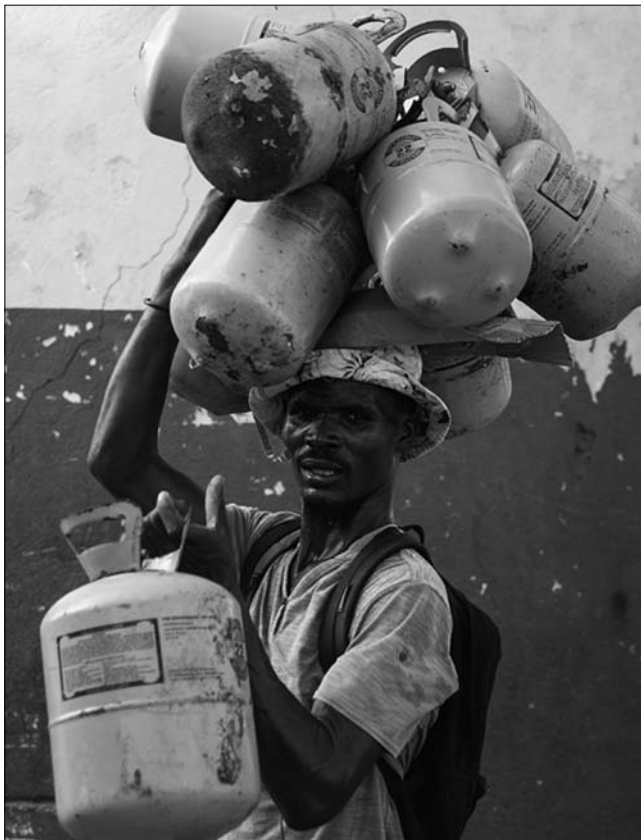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이티 일상, 가스통 이고 가는 남성



27일(현지시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거리에서 한 남성이 빈 가스통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다.

사설

전주 버스 전용차로제 문제

전주시내 버스 전용차로가 유
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
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버스 전
용차로제한 버스의 통행을 원활
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
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정된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
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전주 버
스 전용차로는 지난 1997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원활
한 통행을 위해 도입됐다. 전주
시내 간선도로인 현재 병무청
오거리에서 여의광장 사거리까
지 8.4km, 그리고 평화동 꽃밭정
이 네거리에서 서화광장까지 2
km 구간 등 2개 노선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들이 전용차
로를 수시로 떠나고 있다. 그
렇다고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
지는 않는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
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전용차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도 되는 것인지 혼란만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주시 버스 전용차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에 별 실효성
이 없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이 많지 않아 오
히려 교통 체증을 일으키기 때
문이다.
택시 승하차와 화물 하역, 우
회전 진출입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버스 전용차로를 유
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기 일쑤다. 아무
런 망설임 없이 버스 전용차로
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전주시
는 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초기
에는 단속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단속이나 홍보를 하지 않는다.
전용차로 운영이 교통 소통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부터 평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면 철저히 개
선해야 한다.
차라리 차선을 일반 차선으로
바꾸는 것이 원활한 교통에 도
움이 될 것 같다. 혼란만 일으키
는 전주 버스 전용차로는 폐지
해야 한다. 실제로 필요하다면
엄격히 운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아빠 찬스의 의미

부모 찬스를 사용해서라도 경
쟁에서 이기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대장동 사태는 별 이상한
아빠 찬스가 등장했다. 보이지
않는 특혜가 화한 논리로 곳
곳에 퍼져 있다.
어느 장관의 딸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결국 국립
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모
교인 어느 대학도 입학 취소 절
차를 밟고 있다. 병원에서 인턴
으로 일하고 있던 딸은 자칫 고
졸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린 것
이다.
어느 사립대 대학원생은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부
친의 도움을 얻어 출석을 조작
했다. 허위로 학점을 받고 석·
박사 학위를 부정하게 취득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석 조작에 관여했던
교수들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
다. 해당 대학은 학위를 취소할
방침이며 부친도 학교를 떠나야
할 처지다. 은행권의 채용 비리
도 심각하다.
어느 은행은 2017년 채용 비리
에 연루돼 부정 입사한 20명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12명을 제외
한 나머지 8명을 퇴직 조치했
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채용 비리는 2017년 388건, 2018
년 182건, 2019년 88건이 적발됐
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탁으로 채용표를 조작
하고 있다. 채용 자격을 변경하
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
는 것이다. '부모 찬스'가 채용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찬스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훗날에는 결국 교통이
폐쇄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
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
모 찬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요즘 '공정'이 화두
가 되었다.
'아빠 찬스' 혹은 '엄마 찬스'
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
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제도적 장치의 개혁도 중요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
다. 부모 찬스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과
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
민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